

익산시, 악취 원인 해소 '현장 행정 강화'

정현을 익산시장, 사업장 시설개선 조기 완료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이 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을 찾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원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24일 악취모니터링요원 10여 명과 함께 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악취발생 공정과 악취방지시설을 둘러보고 최종 배출구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했다.

이어 정 시장은 심야시간대 부송·어양동 지역 화학약품 냄새의 주원인

이 되었던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을 방문해 폐수처리시설 덮개 공사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직접 짚어보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개선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익산 악취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악취모니터링요원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하절기 악취 감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익산악취24' 시스템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 산단은 현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희석배수 500배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익산시는 현재 하절기 악취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 접수 시 현장으로 확인하고 체감악취가 높을 경우 수시로 악취를 포집하는 등 24시간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악취저감을 위해 '익산악취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악취 전문인력을 구성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악취는 수시로 발생했다가 사라져

추적 및 관리가 어려운 만큼 실시간 악취발생 상황 확인과 주민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악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5월부터 '익산악취24' 시스템을 운영하며 실시간 악취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7월 현재 140여건의 악취포집을 통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6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익산악취24' (<http://odor.iksan.go.kr>) 또는 야간 악취상황실(☎063-831-8020)로 연락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학교가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양성 교육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양성 교육 지원

박맹수 원광대 총장,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고경빈)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양성 교육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의사를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원광대 의과대학은 총 45시간에 걸쳐 필수 의료 술기에 대한 교육을 지원했으며, 매년 5명의 탈북의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원광대는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의사들에게 학습 자료와 함께 술기 모형과 기자재 사용을 지원하고, 교내에서 실시하는 필기 및 실기 모의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해 2018년 교육생 중 실기에서 1명, 필기에서 2명이 합격했으며, 2019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탈북의사들은 북한 의과대학 학력을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탈북의사가 국가고시를 위해 술기를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없어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남북하나재단은 전국 의과대학에 탈북의사 교육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협조를 얻지 못한 가운데 원광대 의과대학 오석규 학장은 남북평화대 이념과 가치를 고려할 때 탈북민 정착을 위한 교육에 협조하는 것이 공공의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40개 대학 중 유일하게 탈북의료인 교육에 참여했다.

감사패 전달을 위해 지난 24일 총장실을 방문한 고경빈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으로 남북 의료분야 통합 등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인력, 남북대학생 통합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원광대학교병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의료지원 등을 요청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꽃새우 위판가격 폭락 대책 마련하라"

군산연안조방협회, 조촌동 수협 앞서 항의집회

군산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연안조방협회(회장 정재훈)는 꽃새우 위판가격 폭락에 따른 항의집회를 벌였다.

25일 연안조방협회 회원들은 조촌동 군산수협 앞에서 조망어선 포획

꽃새우 위판가격 폭락에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어민들은 꽃새우를 사용하는 가공업체들이 제조 원가 절감 차원에서 외국 제품을 사용해 결국 지역에서 잡힌 꽃새우가 제대로 된 가격도 받지 못해 납품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문호호 연안조방협회 부회장은 "업체들이 군산에서 잡힌 꽃새우를 외면하면서 고스란히 지역 어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군산수협은 관련 대책 마련하지 않고 뭘 할 건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부회장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꽃새우 생산량을 총량하기 위한 대책 및 가격 안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 수협 관계자는 "기업의 이윤적 측면에서 결정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가공상품 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기업지원센터

가족회사 재직자 교육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LINC+사업단 기업지원센터는 송백이엔에스(대표 김범수)를 방문해 LED광원과 ICT 응용설계'를 주제로 가족회사 재직자 교육을 시행했다.

송백이엔에스 요청으로 지난 18일 진행된 재직자 교육은 조명설계와 LED, LED 광원 응용, 시스템조명과 안드로이드 활용, 조명제어를 위한 시스템 회로 구성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담당한 정보통신공학과 박대희 교수는 먼저 광원, 구동회로, 등기구의 설계 개념과 LED광원을 소개하고, LED 광원이 조명영역을 넘어 새로운 광원으로서 농·의생명 영역에 미칠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시스템조명을 위한 제어기술의 기반이 되는 안드로이드와 AI, IoT, 스마트 조명의 이해를 비롯해 기초이론부터 HW 구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조명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최근 주목받는 시스템 광원에 이르기까지 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TLO 연구원들이 모든 영역에서 ICT 융합기술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된 가운데 김범수 대표는 2차 재직자 교육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백이엔에스 흥성한 상무는 "조명전문 교수님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관련 분야를 설명하는 맞춤형 강의에 감사를 드린다"며, "LED광원 및 응용설계와 관련하여 원광대와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연안조방협회는 꽃새우 위판가격 폭락에 따른 항의집회를 벌였다.

익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익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해 숙박객 및 체험객 등 고객맞이에 힘을 쏟고 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7개소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곳은 성당포구마을, 산들강웅포마

을, 용머리고을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예정인 할라두레마당 등 4개소이다. 각 마을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관리자와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시설물안전보합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질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내권 물놀이장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북부권 이동을 위해 휴양마을 물놀이장 이용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준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숙박객 및 체험객이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8월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역 내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법적의무화는 지난 201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 제도의 소유자 인식 제고 및 등록정보 현행화 유도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19. 7. 1~8. 31)을 운영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


하(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1차 과태료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동물 등록 방식은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방식이 있으며, 내·외장형 방식을 하려는 자는 관내 17개 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하면 되고, 인식표 방식을 하려는 자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